

텃밭 호남 민심, 민주 당권 레이스 결과 갈랐다

■ 호남권 순회경선 들여다보니

김민석에 ‘57.64%’ 과반 투표…정청래와 격차 벌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 속 ‘친명’ 전략적 선택 집중
당내 계파 갈등·지방선거 공천 불만…당심 결집 영향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호남의 민심이 8·17 전당대회의 승부를 갈랐다. 당내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한 전략적 투표로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 결과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후보는 13만 9307표 (57.64%)를 획득, 7만9033표 (32.65%)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p 차이로 크게 제쳤다. 송영길 후보는 2만3749표 (9.81%)를 받았다.

김 후보는 호남 경선 전까지 정 후보와 불과 1.48%p 차이 밖에 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호남의 선택으로 누적 득표를 격차는 14.07%p, 6만3360표로 크게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를 선택했다.

나주 출신이자 대표적인 친명 후보인 박선원 후보에게 18.53%를 몰아주며 1위에 오르도록 했다.

무안 출신 서미화 후보에게는 16.86%, 김용 후보에게는 13.63%를 투표,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친명계 인사가 상위권을 차지하도록 결집했다.

친청(친정청래) 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운·한민수 후보는 각각 14.79%, 13.04%, 11.25%를 획득했다.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7.60%, 4.29%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원하는 지역 당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의 미래 발전을 가져올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동력을 위해 정부와 발맞춰 차질없이 추진할 리더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권 1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경선 직전 데크로스를 기록하는 위기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60~70%대 지지율로 정권을 지탱해온 호남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진 것이란 의견이다.

각 후보 모두 정권 안정,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뒷받침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 운영 호흡을 맞췄은 김 후보를 호남이 선택한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과열된 계파 갈등은 호남 민심이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단적인 예로 호남 순회경선을 앞두고 옛 노사모 출신 회원들의 광주행 유세와 ‘영남 깨시민이 호남으로 간다’는 유세 활동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추진위원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남광주 합동연설회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등으로 당내 계파 갈등과 논란이 극에 달하면서 정 후보가 여전한 여지를 주기보다 김 후보가 확실한 득표 차로 승리하게끔 호남의 선택이 집중됐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친명 노선을 지향한 데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정지권 결집도 영향을 미쳤다.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를 향한 지지도 예상했지만 호남 민심은 전력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략적 선택으로 김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고, 당권 레이스 승부를 사실상 결정짓도록 했다.

이처럼 호남 민심이 ‘친명’으로 확실한 노선을 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동력을 한층 더 받게 될 것으로 보

인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 순회경선 직후 SNS를 통해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성장에 대한 열의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뛰겠다”고 전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가 호

남에서 대승한 이유는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효했다”며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에 반영됐으며,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위기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에 안도걸

최종 선호투표 64.61%…권향엽 35.39% 제쳐

정권 재창출·경제 도약·열린 시장 구축 등 약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으로 선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주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장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에는 권향엽, 조계원, 안도걸 국회의원 3명이 출마, 선거 결과 안도걸 의원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으로 뽑혔다.

1차 개표에서 세 후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선호 투표를 반영, 안도걸 의원이 64.61% 획득해 35.39%를 기록한 권

향엽 의원을 제치고 특별시장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직후 양부남 전임 시장위원장으로 부터 당기를 전달받은 안도걸 의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개인 안도걸의 승리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계원, 권향엽 두 후보에게 감사하며, 두 분의 소중한 비전까지 온전히 품고 가겠다”며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신임 특별시장위원장으로서는 향후 시장 운영과 관련해 202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이 지난 15일 나주 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에서 신임 시장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소감을 전하고 있다.

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 견인, 전남광주 경제 대도와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100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책·스마트·열린 미래 시장 구축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회와의 든든한 가고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총선·대선 승리의 길을 활짝 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7개 시·군·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새기고, 세계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통합특별시당을 만들어 당원 동지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신임 시장위원장은 “지난 100년 하늘이 아껴온 이 땅, 전남광주가 역사상 가장 빛나도록 당원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李대통령, 영상 축하 “민주당, 우리는 하나”

“새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둔 17일 “그동안 민주당에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들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하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숭한 위기의 순간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에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과 도약을 이끌,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큰 기회를 확인했다”며 “올해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



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어가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국가, 국민과 모든 지역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산업 강국,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아가는 동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라고 제차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산업용 전기료 차등화…호남 반도체 수혜 기대

기후부, 남부권 인하한 검토…이달 말 공정허서 공개

정부가 호남을 비롯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여건과 호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력 수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열

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현행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82원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권인 호남과 영남은 kWh당 최대 18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을 각각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남부권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평균 요금보다 약 10% 낮아지는 셈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 남부와 인천·경기

북부로 세분화해 인천·경기 북부에는 최대 10원의 인하 폭을 적용하되, 서울·경기 남부에는 사실상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발전시설과 전력 소비시설 간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송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요금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이 실제 도입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광주 군공한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생산시설의 전력

수요는 2031년 1.57GW에서 2034년 최대 6.28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팹 4기의 전력 수요를 약 6.3GW, 가동률을 80%로 가정하고 kWh당 18원의 인하 폭을 적용하면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공급 어려움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전남 동부권에 밀집한 석유화학과 철강 업체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과 제품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하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1면 ‘SK 동부권 투자’서 계속

반도체 팹 확대 가능성도 변수다. 민 시장은 최근 한국전력과 반도체 전력공급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촉여 팹 규모를 확인했다며 “현재 4기로 돼 있는데 삼성 5기, SK 4기 등 9기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전공정 팹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수요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약 250만평 규모인 만큼 추가 팹과 관련 산업시설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군공항 부지뿐 아니라 광주 남구와 나주 산업단지, 무안 등 주변 지역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의 동부권 100조원 투자 계획과 반도체 팹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을 잇는 산업투자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